

서울지하철 파업, 민주노총만 참여... 인력감축 철회 등 '이견'

경고파업에 한국노총 불참
“존중하지만 참여 안 하기로”
공사 협상 수정안 설득 못해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9~10일 진행되는 지하철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경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크게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나뉜다. 이들은 연합교섭단을 꾸려 전날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통합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하지만, 통합노조는 참여하지 않기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합노조가 빠지면서 이번 시한부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9일 서울 성북구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조는 이날 첫 차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시

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만 남게 됐다.

앞서 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만나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1월 9~10일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노사는 인력감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員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감축안을 철

회하고 771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사는 협상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설득하진 못했다. 노조는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운행률은 1~4호선은 평균 65.7%, 5~8호선은 평균 79.8%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시는 노조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이용인원이 많은 2, 3, 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

체 직원 등 1만3500명을 동원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직원 124명을 역사 근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혼잡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한시간 연장(오전 7~10시, 오후 6~9시)하고, 단축차량과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로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한다.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는 120 다산콜센터나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시민이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학부모 설문 편파문항... “긍정적 답변 유도”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 후폭풍
사격세 “상대평가 성적표기 등의 등
특정 응답 유도해 문항 구성 조사”

학부모 10명 중 7명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응답을 유도한 문항’에 따라 조사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며 “이 시안이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 교육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격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전국 48개 교육·시민단체가 9일 이런 우려를 담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내신 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 시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2028년 대입개편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오는 2025년 도입될 고교 학점제와 맞지 않는 데다 공정 평가와도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시안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체들은 교육부가 밝힌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사격세 관계자는 “교육부 설문지 문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라며 “이는 상대평가 성적표기에 대한 동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격세는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이라며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학생들이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해 심리·정서 문제 발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교 3년 내내 ‘상대평가’ 결과를 병기하면

학생 정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 사격세,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전문상담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만나본 적 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응답자 76%는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봤으며, 전문상담교사 42.7%는 해결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18.1%는 ‘대입 절대평가’를 제시했다.

사격세는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통합형 과목 체제 개편’ 등은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학부모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 뒤 오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교육청,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역대 최고 1조4463억 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인 1조4463억원을 편성했다.

도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콩나물시루 학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 통과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도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4463억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내역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3392억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알맞은 시기에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그 결과 전년 대비 예산편성 대상 신설학교 수가 32개교나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1조4463억원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한 신·증설 외에도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증설 사업비 407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7월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 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순천향대, ‘글로벌 다문화 축제’ 성료

재학생·유학생 간 유대감 증진 마련

순천향대학교는 8일 교내 향설광장 일원에서 ‘2023-2학기 순천향글로벌다문화 축제’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재학생과 유학생 간의 유대감과 융화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19개국 유학생들이 ▲한국(미니붕어빵, 공기, 제기차기) ▲미국(말발굽 토스 게임, 카우보이 게임) ▲프랑스(전통 바게트 및 잼 만들기 체험) ▲중국(차와 달걀, 서예 필묵 체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Palov 전통 볶음밥 만들기, 나무인형 만들기) ▲멕시코(전통사

후 Loteria, Calaverita 만들기) 등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16개 부스를 운영하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가별 글로벌 빌리지(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이 시간대별로 부스에 배치돼 한국인 재학생에게 직접 ▲글로벌 클럽 ▲원어민 회화 수업 ▲언어·문화 교류 프로그램 설명과 해외 파견 및 교내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부스도 운영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16년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듣는다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

서울시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6개 작품을 수기집으로 엮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

3973호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했다”며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넓혀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88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이 중 1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현정 기자